

광주 지하철 개통 7년 '탈수룩 적자'

승객·수송분담율 증가 불구 부채 876억
30% 이상이 무임승객...경영 개선 한계

광주 지하철이 28일로 개통 7년을 맞이했지만 65세 이상 승객,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객 증가와 운송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요금으로 인해 승객이 늘면 늘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km당 운영인력을 최소규모로 유지하고 유희지에 나무를 심어 판매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영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28일 개통한 광주 지하철의 올해 1일 평균 승객은 4만8197명으로 지난 2006년 3만112명에 비해 1만8085명(60.0%)이 늘었다. 올해 교통수단 수송분담률도 2.2%로 지난 2005년 1.1%에서 2배 늘었으며, km 당 운영인력은 27.6명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에 비해 가장 낮다. 그러나 이 같은 승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채는 876억6600만원, 광주시의 지원금도 390억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전체 승객의 30% 이상이 무임승차승객인데다 요금이 지난 2007년 이후 1000원으로 동결되면서 평균 운임은 536원으로, 운송원가 4941원의 10.9%에 불과해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하는 실정이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하철 노선 자체가 승객 수요를

감안하지 못하고 설정된데다 무임승객의 급증, 요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에 무임승객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나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 완공, 시내·마을버스·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강화 등 지하철 승객 유지를 위한 정책과는 별개로 역사 내 유희공간 내 상업·문화시설 입점, 환승주차장 유료화 등 신규 수익 창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의 노후를 반영해 도시철도 전반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공재에 해당하지만 운송원가에 10%에 불과한 운임으로 인해 전체 시민의 세금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임승객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고 운임을 올릴 수도 없다면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수익창출에 이용하도록 해서 재정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예술제 개막

28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회 호남예술제 초등부 성악 경연에 참가한 황수련(금당초 2년)양이 앙증맞은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예술 꿈나무들의 큰 잔치' 호남예술제는 오는 6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삼성 새만금 그린에너지 산단 7조6000억 투자 전남도 신성장동력 '시름'

삼성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7조 6000억원을 투입,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키로 하면서 전남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새만금에 추진하는 그린에너지 주력 산업과 전남도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중인 풍력·태양광 등 녹색에너지 사업이 대부분 중복되는 탓이다.

삼성그룹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예정부지(11.5km)에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수종 사업의 생산기지를 건설키로 하고 정부, 전북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삼성은 우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1km 부지에 7조6000억원을 투자,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생산기지, 그린에너지 연구개발센터(R&D)를 구축키로 했다. 이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3km에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짓고 풍력발

풍력·태양광 등 사업 중복 기업·투자 유치 차질 우려

전기 및 태양전지 기지를 증설하는 한편, 2040년까지 4.1km에 연료전지 분야 등을 추가해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삼성그룹의 이같은 사업 계획이 전남도가 선도 산업으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육성 전략과 겹치는데다, 인접한 새만금 지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진행되고 있는 탓에 자칫 지역 핵심 사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연료 산업을 역점시적으로 정해 관련 기업 유치를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삼성의 새만금 투자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않다.

특히 전남도 핵심 현안인 '5GW 풍력프로젝트'는 이미 49개 기업(국내 44·외국 5)이 16조3070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은 상황이지만 정부와 삼성의 이번 발표로 협약을 맺은 이들 기업과 금융기관이 투자처를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는 풍력지원이 우수한 영광·신안 등 서남권 연안 및 해안·해상에 5GW급 발전단지(육상풍력단지 1GW, 해상풍력 4GW)와 풍력설비 전용산단(231만㎡), R&D센터 구축사업 등을 조성, 지역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태양광 관련 사업이나 바이오 연료 사업도 전남도가 추진 중인 녹색에너지 주력 사업들인데다, 중앙 정부가 참여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전남도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나라 지도부 총사퇴

재보선 후폭풍...청와대 참모진 개편 검토

한나라당 지도부가 28일 '4·27 재보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개편을 건의했다. 하지만 당·정·청의 대대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불꽃 터져 솟아져 나오면서 여론이 휩싸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심의 준엄한 목소리에 지도부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일겠다"면서 "민심에 따라 당을 쇄신하겠다"고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선언했다.

안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다음달 2일 의총을 열어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하고, 비대위원장은 추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내 소장파들은 "지도부가 총사퇴한 마당에 무슨 원내대표 선거냐"며 근본적인 당 쇄신과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 당정관계 재정

립 등에 나서기로 결정, 상당한 내용을 예고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4·27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신의 사퇴를 포함한 청와대 개편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 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면모일신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일 실장이 다른 수석과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들과 티 타임을 갖고 4·27 재보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개각에 대한 본격적인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11 원도

건강고 축제

건강의 섬 완도, 청해진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Wando ChangPoGo Festival

2011. 5. 6(금)~8(일) / 전라남도 완도군 해변공원 일원

장보고테마 프로그램

장보고 역사체험 프로그램

건강완도 마케팅 프로그램

청해진문화 프로그램

| 완도장보고축제추진위원회 061)550-5411~2 www.wando.go.kr | 네비게이션 길 안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100번지

주관 완도장보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전라남도 농협중앙회완도군지부 KYOBO 교보생명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